

# 사회와 女性

문교부장학관

심 훈 섭

한국내에서 직업, 특히 봉사직 여성으로서의 철학을 살피 보기로 한다.

산타, 고려조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여성은 개방적이었으나 조선시대는 유교사상으로 가정내에 국한되어 생산과 자녀교육을 담당하였다. 오늘날은 기계문명의 혜택으로 여성의 할일이 줄어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다.

여성의 역할은 교육적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해야 하고 육체적. 정신적. 정신적. 정서를 지녀야 한다.

여성의 시대적인 개념을 살펴 보면 50년대 여성은 남편과 자식에게 의존하던 여성이었고, 60년대는 남자들의 행위에 똑같이 참여하는 여성이었고 70년대는 생각과 사고가 진보적이고 바람직한 여성인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때, 능력, 태도, 행동면에서 남성에게 조금도 떨어지지 않되 가정에서도 민첩이 없는,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여성, 여성의 중심 채색이 뚜렷한 여성이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라 말할 수 있다.

금년도 문교부의 새목표는 “참다운 새 한국인상”의 정립인데 이의 실천방안은

- 1) 한국적 민주주의 ; 민족사관 정통성의 정립, 민족의 열이 담긴 교육
  - 2) 지, 덕, 체에 과학과 기술의 가미
  - 3) 비생산, 비능률, 비합리의 부조리제거에 있다
- 참고로 한국교육의 단계를 살펴보면
- 1) 정초기 (1945~1949) ; 6, 6, 4제로 민주주의 교육제도 도입

- 2) 혼란기 (1950~1953) ; 동란으로 교육시설 파괴

- 3) 복구기 (1954~1960) ; 6, 3, 3, 4제 채택

- 4) 양적 성장기 (1961~1970) ; 학생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시대

- 5) 질적 발전기 (1971~ ) ; 우리나라 교육

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계로 나눌수있다 여성으로서의 참다운 새 한국 여성상을 논하자면 위의 참다운 한국인 상에 더하여 “생활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뚜렷한 철학을 지닌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사임당은 그 당시 어려운 여성의 임무를 가진 역사적 사실속에도, 생각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그림과 글씨로 표현했다는, 즉 실천에 옮겼다는 사실이 훌륭한 절이며 제한된 상황하에서 자기의 철학과 가치관이 뚜렷한 여성이었던 것이다.

UNESCO에서는 1970년을 세계 교육의 해로 발표하면서, 새로운 학문과 기념 및 응용이 연간 천오백만 page에 달하는 지식의 폭발시대가므로, 1일 12시간의 공부를 하여야만 시대에 맞춰 나가는 과학교육을 할 수 있으므로, 학과공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공부하고 스스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을 함에는 주체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주체성이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인정신이다.

주체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에는 1)정의를 가르치고 2)진리를 선택하게 하는데, 진리를 강압적으로 훈련시키는 것 보다는 진리와 정의를 제시하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